



##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故 김수환 추기경님은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ではありません.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추기경님 말씀처럼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더불어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심을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희망의 씨앗’은 우리의 이웃들과 내 마음에서 큰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故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2주기와 2011년도 사순시기를 시작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올 한해 전개할 범국민 장기기증 참여 프로젝트 ‘희망의 씨앗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 ‘희망의 씨앗 심기’ 전국 교구 동시 캠페인



시기 사순시기~연중

내용 사순시기부터 전국 각 본당에 ‘희망의 씨앗 심기 참여신청서(장기기증신청서)’를 배포하오니 신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1599-생명살이(3042)

# ‘생애 첫 기부’ 로 자녀에게 나눔 교육을...



사진. 첫 아이 인혜에 이어 둘째 아이까지 모두 ‘생애 첫 기부’를 한 황인지아기와 가족(2/23)

“나눌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인혜와 인지야!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2/23(수), 이 날 첫 생일을 맞은 인지의 ‘생애 첫 기부’ 전달식을 위해 가족이 함께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첫 아이 인혜에 이어 둘째 아이 인지까지 모두 ‘생애 첫 기부’를 한 황종익(이시돌, 월계동본당)씨는 “남들이 다 하는 돌잔치보다 기부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생일을 맞게 해주고 싶었다”며 함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생애 첫 기부’가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가족으로 시작해 2008년 14가족으로 늘고, 2009년 33가족, 2010년 55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 28일까지 두 달만에 벌써 36가족이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애 첫 기부’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화려하고 소비적인 돌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거나 돌잔치 때 받은 축의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등 기념일에 값비싼 선물 대신 아이 이름이 적힌 후원금 증서를 안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나눔 교육’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故 김수환 추기경의 숭선수범을 통해 사회전반에 확산된 나눔 문화 ▲참여했던 가족들이 개인 블로그나 육아정보 누리방, 카페에 생애 첫 기부 사진과 함께 소감을 올리면서 아기들의 ‘첫 선행’을 소개하고 추천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의미있는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사랑이 ‘생애 첫 기부’라는 나눔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큰 힘이라 생각됩니다. ‘생애 첫 기부’는 첫 돌을 맞는 기쁨 외에도 ▲건강하게 자란 자녀에 대한 감사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부 ▲교육 효과 등이 있어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핵가족, 한자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칫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나눔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습관을 길러 주면 평생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런 사랑나눔이 더욱 많아질수록 우리 아기 기부자들이 살아갈 미래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7 •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에이즈예방캠페인

HIV/AIDS 편견 깨기 ‘에이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 공포, 문란함...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인 질환이라는 것과 특히 동성애자와 성매매 업소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하는 행위라고

불리는 행동을 통해 감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에이즈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무관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사만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한국가톨릭레드리본 (02)753-2037~8 • 홈페이지 <http://www.redribbon.kr>  
 • HIV/AIDS감염인 상담전화 010.5108.2958 • 감염인 취약계층 지원상담 010.7725.2037

# 빈곤퇴치를 위해 '행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행복의 씨앗

환경, 기아, 전쟁, 질병 등 눈앞에 닥친 지구의 많은 문제들. 어떤 이들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천하기에 앞서 의심하고 그 효과에 대해 망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실천은 행복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이 미래를 열어갈 꿈과 행복의 삶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 ▶ 201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현황 ◀

사업국	사업명	사업내용 요약
캄보디아	여성자력화, 지역사회발전	빈곤층 아동교육발전을 위한 유치원, 청소년 교육지원, 여성기술훈련, 소득창출지원, 농업훈련 지원 등
	HIV/AIDS 및 빈곤퇴치	HIV/AIDS 감염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식량 및 주거지원,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 직업훈련 등
	사회발전사업	18개 마을 72개 마을개발운영위원회(VDAMC) 역량강화, 가계소득 증가, 기간산업 확보, 문맹률 감소 등에 기여
	클린워터네트워크	캄보디아 5개 마을 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5,00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제공
	이동식 농업훈련센터	실용적인 농업 기술과 적절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활동의 확장을 통해 가계수입 증가
미얀마	교사훈련프로그램 지원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헌신적인 교사 양성
	지역사회발전	식량 확보와 농업기술 증진, 보건위생 교육, 안전한 식수 접근성 개선, 위생적인 화장실 사용 교육 등을 지원
	녹색혁명과 계단식농업	연 41,000그루 식목을 통한 가뭄 방지, 연 282,786㎡계단식 농업 확대 및 순환식 농업 지원을 통한 식량 증대
파키스탄	지역사회기반 의료보건센터	파이살라바드 지역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건센터운영
	여성자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1~6월) : 재봉, 재단, 전통자수 및 기계자수, 직물, glass painting, 요리</li> <li>생활기술(7~8월) : 의료보건 교육 포함</li> <li>농업/경작(9~12월) 훈련</li> </ul>
부룬디	교사 사택 건축지원, 워터네트워크 확대	나마보코 초등학교 교사 사택 건축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식수시설 확보를 통하여 식수 접근성 확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질병 감소
케냐	지속가능한 농업	재난위극복을 위한 농업시스템, 가축사육시스템, 가계수질시스템을 개선, 학습센터 운영을 통하여 문맹률 감소, 소액대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창출
홍콩	아시아 정의평화를 위한 서비스	정의평화 문제와 관련된 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사소통과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의평화 현안에 대한 인식 향상

\*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http://www.obo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01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74.3488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직원모집

#### ▶ 자살예방센터 직원모집 ◀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분야	자살예방사업 담당 (위기상담전화 및 사이버상담실 운영,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자격	-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상담 또는 임상심리 전공 관련학위 소지자로서 경력제(상담 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출, 예: 임상수련수첩사본 등)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살예방사업 관련 경력자 ※ 상기 3가지 자격조건중 1가지만 해당되면 지원가능함

제출서류	- 본부 입사지원서 양식 (자기소개서) 1부 ※ 본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obos.or.kr">www.obos.or.kr</a> )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당 신부님 추천서 1통 (가톨릭신자에 한함)
접수 마감일	2011년 3월 19일 도착분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 <a href="mailto:obos@atholic.or.kr">obos@atholic.or.kr</a> )
접수처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가톨릭회관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법인사무부 채용담당자 앞

### 하루100원 모으기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1년 2월 28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 우리은행 454-005324-13-001
  - 신한은행 512-03-004088
  - 국민은행 083-01-0309-453
  - 농협 386-01-015833
  -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함께하는 사회사목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2011년 사순절 저금통 안내

2011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저금통을 나누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수난 동참을 위한 정성어린 나눔의 성금은 부활 시기 각 본당 사무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6.8810

####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제8차

##### 자원봉사 재교육

- 일시·장소 3/19(토), 10:00 ~ 15:00  
가톨릭회관 205-2호
- 주제 자원봉사자의 사명과 영성
- 교육비 1만원(자료집, 중식 제공)
- 문의 02.727.2248

### 환경사목위원회

#### 제4회 가톨릭 에코포럼

주교회의에서는 2010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 지침서의 해설에 초점을 맞추

어,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터전인 환경(생태계)에 지고 있는 책무와 그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장소 3/30(수), 19:00 ~ 21: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내용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해설  
제1발제: 창조질서와 인간의 책임 - 이재돈 신부(가톨릭대학 생명대학원)  
제2발제: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제언 - 양기석 신부(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 문의 02.727.2266

### 노인복지위원회

#### 가톨릭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실시

본 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가톨릭 요양보호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내용 카리타스 정신과 영적 돌봄, 효율적 인방문요양서비스 일정표 작성 전략

- 일시·장소 3/23(수), 10:00 ~ 17:00  
가톨릭회관 426-1호
- 신청 문의 02.727.2255(회비1만원)

### 빈민사목위원회

#### “2011년 빈민사목 사순특강”

- 일시·장소 3/9 ~ 4/6, 매(수) 19:00 ~ 20:3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3/9 강의주제 생활과 경제: 한국의 빈곤문제와 가계 부채
- 3/16 강의주제 생명·평화·환경: 창조질서 보존 - 우리의 사명
- 3/23 강의주제 교육과 문화: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 3/30 강의주제 여성과 가정: 여성, 지역의 힘! - 골목대장을 꿈꾸다
- 4/6 강의주제 생활과 정치: 세계화 속의 빈곤의 의미
- 수강료 1만5천원(2009~2010년 빈민사목 사순특강 수강자 20%할인, 교재 제공)
- 문의 02.777.7261

##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정세훈 사도요한 (2009.12.9생 父 정석영/ 母 이혜경),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윤아 바틸다 (2010.1.30생 父 김서규/ 母 김성희),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박소미 (2010.2.23생 父 박태영/ 母 박은하), 365,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함지원 (2010.2.19생 父 함승호/ 母 유미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고은호 스테파노 (2010.1.27생 父 고기원/ 母 홍윤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예소 (2010.2.17생 父 이영중/ 母 최유나), 217,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승원 바오로 (2005.8.3생 祖父 송성대/ 祖母 천정호),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하준 안드레아 (2009.2.21생 父 장성우/ 母 강서훈), 50만원(아이티 긴급구호 돕기)
- 황인지 스텔라 (2010.2.23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신지윤 켈마 (2007.7.31생 祖父 송성대/ 祖母 천정호),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경민 마리아 (2010.2.18생 父 김길정/ 母 우주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손유현 (2010.1.23생 父 손형우/ 母 이민경),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기은준 (2009.12.30생 父 기상경/ 母 정운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하린 (2010.11.8생 父 정연우/ 母 박미진), 3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강종원 (2009.4.11생 父 강덕진/ 母 김정연), 5만원(아이티 긴급구호 돕기)